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성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17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의 적정 규모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들은 체육활동, 합창이나 합주와 같은 음악활동, 학예회와 같은 교육활동은 어느 정도 수의 학생들이 있어야 가능하고, 도덕성이나 사회성의 발달도 친구들과 끼리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

는 것이 많다는 점을 찬성의 논거로 내세운다. 교육 여건도 규모의 경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부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통폐합 이전보다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일정 수 이상 유지되어 누가 가고 누가 오느냐, 즉 교원인사에 의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이 급격하게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바람직한 접근인 것이 아니다. 농산어촌에서 학교는 단지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매개로 서로 간에 관심사를 교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학교는 지역주민 체육대회, 각종 행사 등이 열리는 지역사회의 활동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 추진에서 학교급별로 지역의 특성을 크게 고려함으로써 이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성공하려면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하여금 그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정책의 효과에 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교육의 관점에서 법령으로 확립적 기준을 정하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급별·지역적 특성을 크게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게 적절하다. 그게 농산어촌과 그 지역의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 추진에서 학교급별로 지역의 특성을 크게 고려함으로써 이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성공하려면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하여금 그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정책의 효과에 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교육의 관점에서 법령으로 확립적 기준을 정하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급별·지역적 특성을 크게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게 적절하다. 그게 농산어촌과 그 지역의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의로 칼럼



조철웅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강력한 태양광선 즉, 자외선이다. 자외선은 체내에서 비타민D를 합성하고, 살균작용을 하는 등 이로운 역할을 하는 동시에 피부노화, 백내장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출부터 일몰 때까지 하루 종일 존재하며 구름 낀 흐린 날, 비오는 날에도 피할 수 없

여름철 자외선과 눈 건강

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다. 자외선에 의한 각막화상은 눈의 가장 바깥쪽에 빛을 받아들이는 각막이 손상되면서 염증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된 후 수 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다. 각막화상이 일어나면 눈이 충혈되고 모래가 들어간 듯 한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하며, 통증과 함께 눈물도 난다. 이때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에 안대를 붙여 눈의 감박임을 멈추고 차가운 물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호전되기도 한다. 보통은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지만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5일 이상 지속된다면 안과를 찾아 항생제 등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강한 햇빛을 그대로 쳐다보거나 자외선에 의한 눈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평소 양산이나 선글라스 등을 이용하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해줘야 한다.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이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것만 막아줘도 백내장 발생위험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물가나 모래사장 등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선글라스의 경우 렌즈가 변형되거나 자외선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제품은 어두운 시야 때문에 동공이 확대돼 오히려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할 수도 있어 제대로 된

기고



이상봉

여수엑스포 등 전국 각지에서 각종 행사가 활발히 개최되면서 여행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것이 화폐의 유통량이다. 특히 소매결제 수단인 동전의 유통량은 더욱 증가한다. 한국은행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약 6억7000만장(895억원)의 동전을 시중에 공급했고, 2011년 말 동전의 총 공급 누적규모는 약 194억장(2조원)에 이른다. 이는 국민 1인당 388장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량이다. 이를 동전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약 960억원, 2011년 기준) 또한 크게 늘었다. 동전 공급이 증가한 이유로는 경제규모

‘동전 다시 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확대, 공공요금 및 상품가격의 변동, 대형할인매장 증설, 자동판매기 보급 확대 등 경제적 요인으로 있었지만, 휴대 등의 불편을 이유로 상당부분의 동전을 저금통이나 서랍 등에 방치한 데 있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동전의 제조비용을 줄이고 동전 수급의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5월에 ‘동전 다시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평균 300억원이 넘는 동전이 재유통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5월에 ‘동전 다시 쓰기’ 운동의 달로 정하고 서랍 등에 방치된 동전을 재활용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 기존의 참여기관에 홀푸드사가 추가돼 참여해 더욱 많은 동전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도 평소 저금통이나 서랍 등에 보관하고 있는 동전이 있다면 꺼내 사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등 참가기관을 방문하여 지폐로 교환하기 바라며, 참가기관 또한 시민들의 동전 수납과 교환에 적극 협조한다면 동전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동전 다시 쓰기’ 운동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전 재활용률이 다소 높아졌지만 10원짜리 동전은 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011년 중 광주전남지역에 공급한 10원화는 2205만 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회수된 10원화는 57만개 밖에 안 돼 회수율이 2.6%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휴대하기가 번거롭고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동전, 특히 쓰임새가 적은 10원화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

농촌 교통사고 줄이도록 ‘그린존’ 설치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루빨리 농촌의 마을 입구는 물론 농촌의 아스팔트 도로변에 ‘그린존’ 혹은 ‘슬로우존’ 이거나 ‘실버존’이라는 야광 교통표지판을 세워줄 것을 건의해본다. 이 말의 뜻은 도시의 학생 보호용 ‘스쿨존’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농촌에 이 규격을 설치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농촌엔 70대 이상 노인과 부녀자만 있다. 이곳에서 자동차가 과속할 경우 노인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아주 높다. 또한 농번기때 저녁 늦게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농민들은 야간에 시력이 어려워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농촌의 도로는 갓길 없이 고관바로 차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차도

로 걸어가게 되므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아주 크다. 따라서 농촌주변 도로를 운행하는 차들은 항상 도로에 농민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안전의식 아래 서행해줘야 한다. 둘째는 농촌에는 가족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과속할 경우 놀란 가족이 날뛰다가 차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얼마 전 여수 엑스포를 관람하고 오던 중 한 농촌 국도를 지나다가 저만치서 봉치가 가 과속하다가 마침 그앞에서 한 농민이 데리고 가던 오리떼를 놀라게 하는 장면을 목

격했다. 차의 과속에 놀라 혼비백산 흩어진 오리떼를 다시 추슬러 데려오느라 애먹는 농민을 보고는 그 차가 너무나 날미웠다. 다행히 차가 오리를 치지는 않았지만 이런 난폭운전은 언제든지 가족을 죽게 할 수 있다. 자동차들이 농촌의 도로를 달릴 때는 늘 노인이나 부녀자 그리고 가족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서행운전을 기본으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 도로 입구에 ‘그린존’이나 ‘슬로우존’이라는 야광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줘야 할 것이다. ▲유남규·광주시 동구 계림동

시설

‘박람회 흥행’ 찬물 끼얹은 엉터리 수요 예측

여수박람회 흥행부진과 운영미숙이 잘못된 기본계획과 수요예측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목표 관람객을 과다 책정하고 교통량 예측도 여느나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조직위의 실수는 애초 잘못된 수요조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계획과 산업연구원 1차 수요조사, 경희대 2·3차 수요조사 등 자료에 근거해 박람회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교통분석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관람객 교통수단에 대해 승용차 61.8%, 버스 21%, 여객선 0.9%로 예측했지만 실제 버스 61%, 승용차 23% 등 정반대로 나타났다. 또 평일 하루 2만8000대 주말 7만4000대의 승용차가 몰릴 것으로 예측해 도심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6곳의 환승주차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승용차는 개막 후 12일간 10만7179대에 불과했고, 환승주차장 이용률도 평균 7.6%에 그쳤다고 하니 이런 엉터리 수요 예측이 어디 있는가.

수학여행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이라니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던 40대 기사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교체됐다. 만일 그대로 방치했다 대형사고를 냈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서부경찰에 입건된 N여행사 소속 운전기사 김모(42)씨는 29일 오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2박3일 일정으로 경기도와 서울 등지에 수학여행을 떠나는 광주 윤리중학교 2학년 9개 반 대가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버스기사 상대 교통안전 교육 및 음주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윤리중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서 버스기사 9명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김씨에게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검출을 확인했다. 김씨는 수학여행 당일인 이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기사가 취중 운전할 작정을 했더니 과

연 정상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자식이 수학여행 버스를 탄다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수학여행 버스의 교통사고는 다반사인데다 대형참사도 적지 않다. 최근 한 달 사이 제주와 강원 양구에서 수학여행 버스 추돌 및 추락사고로 교사 1명이 숨지고 학생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내 수학여행은 대부분 전세버스로, 관광 성수기에 집중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하물며 음주운전까지 한다면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떠날 때부터 높은 사고 위험에 휘말리는 셈이다. 사업자와 교통당국이 전세버스의 정비 철저와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버스기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음주 여부 조사가 의무화해야 한다. 한편으로, 사고의 개인성을 미리 방지할 윤리중학교의 안전 의식이 타학교의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낸다.

無等鼓

넉센이 2012년 프로야구 초반 이변을 일으키며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30일 현재 22승 1무 18패로 1위와 승차 없이 2위를 기록중이다. 하지만 넉센은 지난 23일 창단 5년만에 처음으로 단독 1위를 기록했다. 재벌그룹인 타구단과 달리 히어로즈는 야구 전문 기업이다. 타 구단 운영비의 50~60% 정도 쓰면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각종 언론 매체는 넉센의 상위권 도약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대박을 쳤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할 수 없다. ‘강진 포비아’ 라고 할 만큼 공포감이 강하다. 넉센을 제외한 7개 구단은 연고지 인근에 2군 구장과 클럽하우스를 갖고 있다. 하지만 넉센은 서울 목동구장에서 강진군 도암면 화장리 베이스볼파크까지 자동차로 5시간 30분을 가야한다. 특히 이곳은 외진 곳에 있어 야구 외에 다른 할 일이 없다. 선수단 전원이 합숙하며 야구만 한다. 그래서 양승준 감독이 지휘하는 넉센 2군의 훈련량은 8개 구단 가운데 최고다. 부진하면 코칭스태프로부터 바로 2군행 지시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1군에 남기 위해 넉센 선수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피달리는 경쟁을 한다. 2군에 떨어지는 것도 두렵지만 야구 외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강진행이 거의 공포 수준이라는 것이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에 대한 집착과 강한 승취 동기가 있어야 한다. 넉센 선수들에게 강진은 성공을 위한 긍정적 공포심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넉센이 프로야구 최고 히트상품으로 떠오른 데는 김시준 감독의 리더십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나온다. 하지만 역설적인 이야기로 ‘넉센 2군 효과’ 즉 ‘강진 포비아’가 실력 있게 회자된다. 강진군에 넉센 히어로즈의 2군 구장이 있기 때문이다. 2군을 경험한 넉센 선수들은 강진을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부른다. 물론 모든 프로선수들은 2군행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넉센 선수들은 그 강도가 다른 구단과 비교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윤석
대표전화 222-8111-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